제3장

명청대 및 근대 유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8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명 · 청대 유학 및 근대〉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개별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연구재단 수록 논문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명 · 청대 유학〉 시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7편으로 조사되었다. 〈근대〉 시기는 4편이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물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2. 인물별 분류

1) 왕양명 관련 논문(1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태모	양명의 본체와 공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 · 사상 · 문화
2	박길수	왕수인의 감정론 연구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고재석	양명 만물일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4	전상모	양명 심학의 미학적 이해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5	임홍태	왕수인과 손응오의 四書觀 비교 연구 –「傳習錄」과 「四書近語」를 중심으로 –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6	이천일	왕양명 교육론의 교육원리 고찰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7	김세정	양명심학을 통해 본 돌봄과 치유의 효 인성교육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8	선병삼	양명심학과 명대 정치문화: 각민행도(覺民行道)를 중심으로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유교사상문화연구
9	선병삼	구양덕 양지론의 종합적 이해– 천리명각, 시비지심, 적자지심을 중심으로 –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10	박현정	양명후학 섭표 歸寂說의 體用一源 연구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11	신현승	明末浙江禪文化的盛況與儒教的應對—以靜坐爲中心 –	영남퇴계학연구원	퇴계학논집

〈명청대 유학〉 전체 17편의 논문 중에서 양명학 관련 논문이 11편으로 전체 편수의 65%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2017년도에 80%를 상회하는 수치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5년도 9편, 2016년도 12편, 2017년 21편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올해는 다시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국 학계에서 명 · 청대 중국 유학 연구는 여전히 양명학 관련 연구가 중심에 있음을 또다시 확인했다.

(1) 안태모의 〈양명의 본체와 공부에 관한 연구〉는 사구교를 중심으로 왕양명의 본체와 공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글이다. 사구교의 시작을 거론하자면 당연히 왕기와 전덕홍의 이른바 천천교문답이다. 후에 동림학파의 영수로 활동한 고헌성이 사구교 제1구를 비판했다. 사구교 논쟁사에서 중요한 한 매듭에 해당한다. 안태모는 이상의 내용을 살핀

후에 양명의 본체와 공부에 대한 이해를 총괄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

안태모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다. "왕기는 심의지물(心·意·知·物)이 구조적 연관성에 의거하여 본체의 무선무악(無善無惡)을 깨닫는 것이 공부임을 주장했지만, 습심(習心)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악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전덕홍은 위선거악(爲善去惡) 공부의 당위성에 의거하여 본체를 회복하는 공부를 견지했지만 본체에서의 공부를 부정함으로서 무선무악의 함의를 깨닫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명은 두 사람이 상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체와 공부가 즉체즉용(卽體卽用)임을 강조한다. 고헌성이 무선무악을 두고 성선설을 부정했다는 비판은 양명의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고헌성은 무선무악한 본체와 위선거악의 공부는 상호 모순되며, 본체를 무선무악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위선거악의 공부가 위축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유선무악(有善無惡)의 본체를 제시하고 위선거악의 공부를 통해 지선한 본체의 확충을 강조한다. 그러나 양명은 무선무악은 공부의 근거가 아니라 습심에 의한 선악시비(善惡是非)의 분별과 집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면서 자발적인 도덕실천을 강조한다. 본체와 공부가 통일된 경지는 무엇인가? 바로 락(樂)이다."

안태모의 논의는 왕기 본체, 전덕홍 공부라는 도식에 충실한 견해다. 이 관점은 전통적이지만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입장이다. 치양지 공부는 양지대로 하는 공부로 본체의 주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본체와 공부를 둘로 나눌 수 없다.

(2) 박길수의 〈왕수인의 감정론 연구〉는 왕양명의 정감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 의의를 해명하고자 한 글이다. 양명이 성이 아니라 심(良知)를 중심에 둔 이상 필연적으로 심(인지, 정감, 의지의 종합체)의

정감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지는 시비지심이고 사단으로 도덕정감이기 때문이다.

박길수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다. "양명은 심의 본체와 작용을 정감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재구성한다. 체용의 관점에서 심의 즐거움, 호오, 감정의 상관관계를 위상학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학 이념으로 제시한 심신지학(心身之學) 공부론의 토대를 마련한다. 공부의 핵심은 감정의 중절을 성취하는데 있으며, 그 목적은 심의 본체인 즐거움을 체인하기 위해서이다. 양명이 정감에 근거하여 심성론을 새롭게 건립한 까닭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주자학이 형이상과 형이하의 구도 아래 심과 성을 구분하고, 성즉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감을 심의 본질과 특징에서 배제한 것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윤리학의 인간학적 토대를 다진 데 있다. 성인의 경계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정감의 함양과 고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박길수의 본 논문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양명의 정감론을 현대의 언어로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표현하려고 시도한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3) 고재석의 〈양명 만물일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연구〉는 양명의 만물일체를 논구한 글이다. 만물일체는 양명 심학의 전유물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양명이 자신의 심학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심학의 궁극적 지향으로 만물일체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후 양명 심학 내에서 중요한 철학적 주제가 되었다. 특히 주자가 지성주의를 표방하면서 만물일체 사상을 경계한 태도와 대비되면서 양명 심학의 특징으로 부상했다.

고재석이 정리한 내용은 이렇다. "양명은 만물에 대한 존재론적 구

조 형식과 일체에 대한 본체론적 의미 규정을 통해 자기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그 의의를 정립하고 만물과 일체를 실현하는 수양공부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영명한 마음은 만물을 주재하는 주체로 만물은 영명한 마음에 의존하여 그 가치와 의의를 획득한다. 동시에 영명한 마음은 만물과의 감응 속에서 인식 대상에 따라 자기 모습을 새롭게 규정한다. 만물이 없으면 영명한 마음도 존재할 수 없다. 영명한 마음과 만물은 주객의 구분이 없고 본래 합일되어 있는 관계다. 만물은 인식 이전에 하나의 기(氣)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유행하고 감통한다. 다만 존재론적 합일은 영명한 마음에 기초했을 때 성립 가능하다. 마음의 본체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형이상학적 본성이 아니라 세계 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현시되는 공감의 감정이다."

고재석의 본 논문은 기존의 만물일체 논의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한 글이다. 육상산 심학 전공자인 필자가 연구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해의 심화를 도모한 글로 사료된다.

(4) 전상모의 〈양명 심학의 미학적 이해〉는 양명 심학을 미학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미학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학과 심학을 단순 비교한다면 심학에서 풍부한 미학적 자원을 살필 수 있다. 아름다움 자체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학 체험을 중심에 둔 다면 심학과의 연관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상모가 서술한 내용은 이렇다. "양명의 3대 학설을 각각 심물동체(心物同體)의 본체미학(本體美學), 사상공부(事上工夫)의 실천미학(實踐美學), 심상공부(心上工夫)의 체인미학(體認美學)으로 정의하고 양명 심학을 미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양명의 '심즉리설'로 보면, 가치의 주체를 벗어나서는 그것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일종의

주객관이 통일된 의상(意象)이다. 주체의 관조를 떠난다면 대상세계의 존재는 다만 하나의 자연의 존재일 뿐이고, 주체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물동체의 본체미학이라 하겠다. 양명의 '지행합일'설은 '지'와 '행'이 본래 하나의 공부이고, 그것들은 하나의 과정의 두 가지 측면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식이나 도(道, 곧 美)의 획득은 실천 공부로부터 오고, 진정한 지식도 단지 모든 행동이 있어야만 비로소 의의를 가진다. 심미활동이 일종의 정신활동일 뿐만 아니라 실천 속에서 인격 완선을 목표로 한다. 유가 실천미학의 전통을 자각적인 경지로 끌어 올린 사상공부의 실천미학이다. 양명의 치양지설은 사람들이 물욕을 제거하고 양지를 체득하는 것이다. 양명은 양지를 명백하게 깨달아 오직 습속에서 만들어진 의미의 세계를 없애야만 비로소 치양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다. 마음의 본체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오직 마음으로만 '도'('미')의 파악할 수 있고 '도'('미')의 자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여겼다. 양명의 직각적 관조 방식은 이성적 분석을 배제하고 전체적 깨달음과 파악을 중시하는 심상공부의 체인미학이라 하겠다."

전상모의 본 논문은 아마도 논자의 기존 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설계가 큰 그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전제를 상세하게 밝혔을 것이다. 체인미학을 논하는 대목에서 '양지를 체득한다.', '이성적 분석을 배제한다.'는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5) 임홍태의 〈왕수인과 손응오의 사서관(四書觀) 비교 연구: 「傳習錄」과 「四書近語」를 중심으로〉는 귀주지역 양명후학을 연구한 글이다. 최근 중국에서 양명학 연구가 활발한 지역이 귀주성이다. 귀주 용장은

양명이 용장오도를 한 곳이다. 황종희는 〈명유학안〉에 귀주 지역의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근래 귀주성에서 양명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른바 검중왕문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검중왕문의 대표적인 학자인 손응오의 〈사서근어〉와 왕양명의 〈전습록〉을 비교하면서 검중학문의 학문적 특성을 고찰한 글이다.

임홍태의 서술은 이렇다. "손응오는 어린 시절부터 간접적으로 양명 심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양명학단의 학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그들의 사상을 수용 발전시킨다. 손응오는 양명의 근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양명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검중왕문이라는 학파를 형성한다. 손응오 사상의 핵심은 인을 추구하는 것을 종지로 삼고 성의신독을 공부의 요점으로 삼고 있다. 손응오가 성의신독을 강조한 태도는 양명학단에서 본체에 대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분파에서 나타나는 폐단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격물 해석에 있어서도 주자의 궁리와 양명의 정심과는 달리 왕간의 회남격물설을 수용하였다."

최근 귀주 지역 연구자들의 성과를 보면 검중왕학은 왕기, 왕간 등 현성양지설을 주장하는 양명후학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손응오가 왕간의 회남격물설을 수용하는 입장은 근래 검중왕학의 정체성으로 제기하는 주장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의를 소상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6) 이천일의 〈왕양명 교육론의 교육원리 고찰〉은 양명심학을 교육론의 시각으로 해석한 글이다. 심학과 교육론을 결합한 연구도 매년 발표되고 있다. 양명심학이 심을 강조하면서 주체성과 자율성을 주자학

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장시켰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천일의 연구 또한 동일한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천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왕양명의 교육목적은 양지 실현이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재하고 있는 선천적 도덕원리로서의 본심인 양지 실현 즉 치양지를 뜻한다. 인간은 양지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치양지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면서 교육적 존재이기에 양명이 바라보는 교육은 학습자가 내재하고 있는 자가준칙으로서의 도덕 원리인 양지를 내적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보존하고 생활 속 모든 일에서 실천을 통해 양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 보았다. 치양지를 목적으로 하는 양명의 교육론은 연구자는 심신을 올바르게 하여 학습자 스스로 배움의 의지를 세우는 자발성의 원리, 학습자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욕을 제거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자각하여 능동적으로 터득하는 능동성의 원리, 개개 학습자의 개성과 흥미 능력과 재능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지는 개별화의 원리, 학습자의 통합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덕(德) 지(知) 체(體)의 통합을 추구하는 전인성의 원리 등을 찾을 수 있다. 양명 교육론의 이러한 교육원리는 창의적인 사고력 및 융합적인 문제해결력 성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현대교육의 이론적 바탕인 구성주의 교육의 원리와 교육내용 면에서 일맥상통한다."

이천일의 본 논문은 양명심학 교육론의 기본 이해 도식을 답습하고 있다. 현대 교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구성주의 교육과 비교하면서 어떤 시사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적인 의의를 본 논문에서 찾을 수는 없었다.

(7) 김세정의 〈양명심학을 통해 본 돌봄과 치유의 효 인성교육〉은

효의 측면에서 양명학을 고찰한 글이다. 실천성을 강조하는 양명학의 특징을 염두에 둔다면 양명이 인을 실천하는 근거인 효제를 중시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당연하다. 주자학과 대비하여 양명학은 위계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봉건적이고 수직적이라는 효와 대한 부정적 이해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인성교육을 훈육으로 폄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기능을 한다.

김세정의 입장은 이렇다. "효(孝)가 현대 우리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봉건적이고 수직적인 가치이며,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입한 덕목으로 자율성과 실천성 확보가 어려운 덕목이라는 비판이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양명심학에서 인간은 누구나 주체적 · 능동적 · 자발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는 물론 다른 사람과 자연물에 대해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본성과 마음과 능력을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심학에서는 효와 관련된 덕목과 절목들에 대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물론 교사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교화시키는 수직적, 수동적, 타율적 인성교육은 반대한다. 구체적 교육 내용으로 '이기적 개체 욕망의 제거와 자기반성의 효 인성교육'과 '지행합일의 효 인성교육'이다. 기존의 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양명 심학에서 이야기하는 돌봄과 치유로서의 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자기반성에 근거한 자율성과 능동성과 실천성을 증진시켜주는 효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8) 선병삼의 〈양명심학과 명대 정치문화: 각민행도(覺民行道)를 중심으로〉는 양명학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논문이다. 양명심학의 발생과 발전을 당시의 정치문화와 연관 지어 논의를 전개한다.

선병삼의 주장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주자의 성즉리(性卽理)와 양명의 심즉리(心卽理) 명제를 가지고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同異)를 따지는데 이를 학술적 혹은 철학적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학이 현실 정치와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으로 갈리는 근거로 송나라와 명나라의 정치문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영시(余英時)는 송대는 득군행도(得君行道), 명대(청대)는 각민행도(覺民行道)로 구분하였다. 여영시가 제시한 각민행도의 도식은 양명학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양명학을 겨냥한 임정종욕(任情縱慾), 창광방자(猖狂放恣), 방기공부(放棄工夫), 엽등공부(躐等工夫) 등등의 비판을 효과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선병삼의 주장은 아래에서 자세히 따져보겠다.

(9) 박현정의 〈양명후학 섭표 귀적설(歸寂說)의 체용일원(體用一源) 연구〉는 섭표 양지론 연구다. 섭표는 허적 양지론과 귀적 치양지론을 주장했다. 섭표는 이른바 양명우파로 현성양지를 주장하는 좌파를 공격하면서 귀적 공부론을 강조했다. 주자학은 천리를 성이라고 하면 양명학은 천리의 명각을 양지라고 한다. 양지를 본체로 삼은 이상 양지 활발에 근거를 둔 현성양지는 양지학의 본령에 가깝다. 양명후학들 중에서 현성양지를 주장한 왕기는 물론이고 전덕홍이나 추수익도 섭표의 귀적 치양지설을 반대했다. 섭표는 선체후용의 체용론을 동원하여 자신의 귀적 치양지설을 옹호한다.

박현정은 이렇게 말한다. "섭표 귀적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체의 의식 활동을 벗어나 양지본체를 구하는 공부를 강조한 점과 본체와 작용 사이에 미묘한 시간적 차이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섭표의 귀적설은 작용, 즉 이미 발한 현상을 통해서는 본체를 구할

수 없고, 본체가 먼저 확보되면 작용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 현실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본체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섭표의 귀적설은 양명의 즉체즉용(卽體卽用), 즉용즉체(卽用卽體)의 체용일원과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고, 양명의 종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철학사라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섭표의 귀적설은 양명후학의 사상 중 양지본체를 향한 희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이후 작용 자체를 양지본체로 여기는 극단적 경향으로 흘러간 양명후학의 폐해에 대해 일찌감치 예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양지학의 본령에서 보자면, 섭표의 귀적설은 주자의 성본체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는 당시 양명후학자들에 국한하지 않는다. 당장에 모종삼의 평가를 들어봐도 그렇다. 그러나 실제적인 공부 측면에서 섭표의 귀적 치양지설은 양지학의 본령 안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현성양지를 비판하면서 귀적설을 옹호한 양명후학들이 모두 주자학으로 경도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루겠다.

⑽ 선병삼의 〈구양덕 양지론의 종합적 고찰〉은 양명의 적전으로 평가받는 구양덕의 양지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구양덕 양지학 이해는 한국에서 양명후학 연구자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 강전무언의 3파설 구도를 보완할 수 있다. 강전무언은 양명후학을 수증파(우파), 현성파(좌파), 정통파(중도파)로 나눈다. 수증파는 공부를 중심에 두었고, 현성파는 본체를 중심에 두었고, 정통파는 본체와 공부를 겸장했다고 한다. 우파로는 섭표, 좌파로는 왕기, 정통파로는 구양덕을 배치했다. 따라서 정통파와 현성파의 본체 구별, 정통파와 수증파의 공부 구별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다.

⑾ 신현승의 〈명말 절강 선불교 문화의 성황과 유교의 대응: 정좌를 중심으로(明末浙江禅文化的盛况与儒教的应对:以静坐为中心〉은 유종주의 신독공부를 다루고 있다. 유종주 사상은 신독성의설(愼獨誠意說)로 압축된다. 성의설은 왕기를 위주로 한 현성양지론을 보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유종주는 자신의 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음이 발동한 것이 의'라는 기존 이해를 뒤집고 '마음에 보존된 것이 의'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상은 비교적 잘 알려진 내용이다. 신현승은 새롭게 정좌를 중심으로 유종주 신독설을 검토한다.

신현승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 명대 말기 강남 지역은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합일 사상이 성행했다. 비록 그 시대는 혼란과 분열,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해 왕조(王朝) 교체라는 비극적 장면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학계에서는 조화와 화합의 사상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유종주는 이와 같은 시공간적 배경 하에서 불교에 대항하여 그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유교 자체의 정좌법을 주장한다. 우선 중국 명대 말기의 삼교합일 사상의 성행, 절강 지역 선(禪) 문화의 유행에 따른 각종 선회(善會) 활동의 양상 등을 고찰하고, 유종주의 정좌법을 고찰한다."

2) 왕부지(2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진성수	王夫之 四書學의 특징과 淸代 實學으로의 전환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2	이향준	왕부지王夫之: 욕망의 서恕	한국공자학회	孔子學

2014년 리포트를 작성한 이래로 왕부지 연구는 매년 1편 이상이 학계에 보고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명말 청조의 대유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인물이다.

(1) 진성수 〈왕부지(王夫之) 사서학(四書學)의 특징과 청대(淸代) 실학(實學)으로의 전환〉은 왕부지 사서학을 중심으로 청대 실학적 전개를 고찰한다. 왕부지는 장재의 기 철학을 계승한 것으로 유명하다. 왕부지가 장재의 기 철학을 계승한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가? 왕부지는 양명학과 주자학의 공리공담을 기 철학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다.

진성수는 이렇게 정리한다. "명조(明朝)의 유신(遺臣)이었던 왕부지의 철학사상은 대의명분(大義名分)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의 경세론은 강한 민족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치용(經世致用)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염원이 담겨있다. 왕부지는 새로운 세계관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장재(張載)의 기 철학(氣哲學)을 계승하여 기일원론(氣一元論을 완성했다. 기일원론을 토대로 왕부지는 송명이학과 노불을 비판하고, 유학의 오래된 과제였던 '도덕과 경세'의 합일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왕부지는 '존재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우주'라는 정주학의 본체론을 비판하고, '움직이는 우주 본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왕부지는 지식보다 실천을 강조한 새로운 경학방법론과 수양론을 완성하였다. 현실개혁에서 출발한 왕부지의 비판의식은 결국 송명이학에 대한 비판을 거쳐 인간의 능동적 실천을 강조하는 경세론과 수양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왕부지의 사서학은 실용성을 강조한 청대 실학으로의 전환기 사상이다." 진성수의 본 논문은 학계에서 공인된 입장을 가지고 꼼꼼하게 정리한 글이다.

(2) 이향준의 〈왕부지(王夫之): 욕망의 서(恕)〉는 진성수의 글과 같은 듯 다른 빛깔을 갖고 있다. 실학이라고 하면 실용적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근대를 떠올리게 된다. 근대는 전체와 집단 문화에서 개인과 욕망의

발견으로 길을 건넌 것을 의미한다. 진성수의 글이 실용적이고 경세적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향준의 글은 개인과 욕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향준의 입장은 이렇다. "서의 개념사에서 왕부지의 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글은 왕부지의 서를 욕망의 동질성과 차이에 근거를 둔 '욕망의 서'로 명명하려고 한다. 이것은 성리학적 서가 인간 마음의 동질성 가설에 기초를 두고 자신들의 서를 양식화하려는 시도와 대조된다. 성리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당위의 서'를 주장했다. 반면에 왕부지는 성리학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서의 배후에 자리 잡은 '인간 마음이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는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왕부지는 우리가 타인과 완전하게 같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동질성에 근거를 둔 행동 양식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에 근거를 둔 행동 양식의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결국 우리는 자기가 그것을 원한다는 이유로 타인도 그것을 원할 것이라는 동질성 가설을 포기해야 한다. 그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남에게 베풀 수 없다는 인간적 사실의 확인이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타인의 욕망이 나와 겹치지 않는 다른 것일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욕망의 서'라고 부른다면, 왕부지는 송명시대로부터 청대로 이행하는 학술사적 전환의 과정에서 서의 개념체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 준다. 그는 욕망하는 인간을 서의 개념사에서 전면에 주제화시킨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욕망하는 인간이 동양의 근대사적 전환을 거치면서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나아갔는가를 해명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철학적 질문 가운데 하나다."

이향준의 논의를 읽으면서 〈국부론〉을 지은 아담 스미스를 떠올렸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국부론〉의 가장 잘 알려진 테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도덕철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사욕 긍정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의 합리성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풀었다. 욕망하는 개인이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체제다. 이향준의 왕부지 해석을 빌리면 '욕망의 서'라고 할 수 있다.

3) 옹방강(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양원석(楊沅錫)	翁方綱의 詩經學 — '漢宋兼采'의 경향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양원석의 〈옹방강(翁方綱)의 시경학(詩經學): 한송겸채(漢宋兼采)의 경향을 중심으로〉는 본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이래로 처음 설명하는 학자인 옹방강을 다룬 글이다. 옹방강 하면 추사 김정희가 떠오른다. 한국에서는 추사와 관련하여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작 옹방강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 이름값에 비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양원석은 이렇게 정리한다. "청대 건가(乾嘉) 시기 학자인 옹방강(翁方綱)은 한학(漢學)과 송학(宋學) 연구 방법의 장점을 동시에 채용한 경학 연구를 제창한 한송겸채(漢宋兼采)를 주장했다. 〈시경〉에서 시서(詩序)를 존신하고, 모전(毛傳) 해석을 신뢰하고, 고훈(古訓)을 중시하고, 의경(疑經) 풍조를 반대하는 한학적(漢學的) 경향을 갖고 있다. 또한 정현(鄭玄)과 공영달(孔穎達)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주자의 입장을 긍정적으

로 취하는 송학적(宋學的) 경향도 보인다.”

주자 경학을 집대성한 사서 주석이 과거 교재로 채택되어 막강한 영향을 미친 데에는 한 대의 훈고와 송대의 의리 전통을 녹여 객관성과 철학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저작이기 때문이다. 한송겸채의 경학 전통은 주자를 정점으로 삼는다.

4) 위원(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노병렬 천병돈	李恒老와 魏源의 時中之道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노병렬 · 천병돈의 〈이항로(李恒老)와 위원(魏源)의 시중지도(時中之道)〉는 19세기 서세동점의 파고를 맞닥뜨린 동양 지식인의 반응을 탐색한다. 조선의 이항로는 위정척사운동의 거두로 활약했고 위원은 〈해국도지〉를 지었다. 이항로의 위정척사에 반영된 태도와 위원의 〈해국도지〉작성에 반영된 태도는 대비된다. 이항로는 쇄국의 방향으로, 위원은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노병렬 · 천병돈의 주장은 이렇다. “조선과 청나라는 서양의 압력에 의해 문호를 개방했다. 피동적으로 개방된 국가는 사회 문화적 혼란을 겪는다. 전통적 사회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전혀 다른 가치들이 전통적인 문화체계와 가치들을 위협할 때, 그 압박감은 더욱 가중된다. 이항로는 서구문물의 수용을 일체 거부하는 척사위정(斥邪衛正)론으로, 위원은 중체서용(中體西用)론으로 전통적 체제를 수호하고자 했다. 이항로는 불변의 리가 우주의 근본이라고 여겼다. 불변의 리는 주자학(中

華)을 계승한 조선(小中華)으로 대체된다. 중화를 대체한 불변의 리인 조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항로가 지키고자 했던 조선은 국가로서의 조선이 아니라, 주자학을 계승한 '소중화의 조선'이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은 이항로에게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였다. 결국 이항로가 주장한 위정척사 운동은 배타적이고 보수적이며 반근대적이고 반서양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위원은 세계는 쉬지 않고 변한다고 보았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위원은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주목했다. 서양 제국주의의 압박 또한 변화하는 세계의 한 단면이라고 파악한 위원은 서양의 장점 특히 과학기술, 정치제도,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자는 태도를 취했다. 위원의 이러한 정책들이 청나라 정부에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훗날 양무(洋務)·변법(變法)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항로와 위원이 당시를 진단하고 내린 처방을 후대의 시각으로 단순히 우열을 따질 수는 없지만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이들의 시대의식과 대처 방식을 그들의 철학사상까지 소급하여 규명하는 방식은 사상사 연구의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5) 기타(2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상우	왕대여(王垈與)의 三一論 – 이슬람의 유학적 해석–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2	전홍석	명말 예수회 '천학·선교신학'의 분화: 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2015년도부터 리포트를 작성한 이래로 다음 2편에서 다룬 내용은

처음 분석한다. 권상우의 글은 이슬람교와 유교를, 전홍석의 글은 천주교와 유교를 대비적으로 살핀 글이다. 전통사회에서 유학은 서양의 기독교와 이슬람교처럼 사회 이념으로 작동했다. 유학의 종교성을 따지는 문제는 유학의 본질을 다루게 된다. 특히 다음 두 편의 글은 이슬람교, 천주교와 대비하여 송명이학의 특징을 보여준다.

(1) 권상우의 〈왕대여(王岱與)의 삼일론(三一論): 이슬람의 유학적 해석〉은 동북아 이슬람에 대한 연구다. 왕대여는 이슬람교를 유학의 용어와 사상으로 해석을 시도한 최초의 무슬림 학자다.

권상우는 이렇게 정리한다. "왕대여는 알라신, 세계 그리고 인식론을 언급하면서 유교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 알라신을 우주만물의 근원인 一로 해석하고, 세계를 무극과 태극, 음양과 사상의 도식으로 해석하고, 진주에 대한 인식 또한 심여리(心與理)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유학은 현세의 도덕철학과 자연 법칙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주의 기원과 종말에 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본다. 유학의 한계를 이슬람의 종교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권상우는 왕대여의 작업을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경전을 유학의 용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유학과 융합되는 특징을 갖게 되고, 유학은 타 종교와의 만남을 통한 이론지평을 확장했다고 평가한다.

(2) 전홍석의 〈명말 예수회 '천학-선교신학'의 분화: 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은 천주교 중국 선교에서 마테오리치 노선과 롱고바르디 노선을 소개한다. 마테오리치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선교사이지만 롱고바르디는 생소한 이름에 속한다. 롱고바르디는 마테오리치 사후 중국 선교 책임자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전홍석이 착안한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마테오리치와 롱고바르디를 양편의 대립적 노선으로 보지 않

고 마테오리치의 후임자인 롱고바르디는 리치 노선을 계승 발전시켰다는 입장이다.

전홍석의 설명은 이렇다. "명대 말기 재화 예수회 내부에서 발화된 '중국전례논쟁'은 가톨릭선교사 '천학 · 선교신학'이 분화되는 시발점이자 외재형식인 점은 특기할 만하다. 예수회 천학의 분화요인에 관한 쟁점은 리치의 '적응노선' 과 롱고바르디의 '보수(비적응)노선' 간의 관계설정이 문제의 핵심이다. 양자 간의 '단절' 혹은 '계승'이라는 상대적 편향성에 기대어 도출한 기존의 이론들은 본래적 천학체계에 내재된 '역사분화법칙'을 적확하게 읽어낼 수 없다. 리치와 롱고바르디의 선교학적 갈림길은 엄밀히 말해서 문화 · 복음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인식의 경계선상에서 촉발된 것이다. 리치가 무게 중심을 '연속성'에 두어 '문화적응주의적 상층학술노선'을 확정했다면 롱고바르디는 '불연속성'에 치중해 '신학(복음)보수주의적 평민영성노선'으로 나아갔다. 이 논단을 재차 두 노선 간의 관계설정에 대입해보면 단절성과 계승성이 동반하는 역사변증법적 천학의 분화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

6) 근대(4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종모	소수자 담론으로서 유학의 가능성: 강유위 〈대동서〉를 중심으로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2	황종원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 –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3	김영진	章太炎 齊物論釋의 '成心' 해석과 종자설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이철승	양수명철학에 나타난 인심관 문제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유교사상문화연구

근대는 통상 청말부터 민국 시기까지를 꼽는다. 중국 학술사에서 명인과 명작이 많이 나온 시기로는 단연 춘추전국 시기와 민국 시기를 든다. 혼란의 시대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중국이 새로운 사회로 변환하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시대에 빛을 던지는 작품들이 나온 것이다. 이 시기를 활동한 인물 중에 한국 학계에서 관심을 보이는 인물로는 연구 논문 편수로 보건대 강유위, 양계초를 위시하여 장태염, 양수명 등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네 인물에 관한 논문들이 주요 학술지에 보인다.

정종모의 〈소수자 담론으로서 유학의 가능성: 강유위 〈대동서〉를 중심으로〉는 강유위의 대동서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글이다. 강유위가 누구인가? 1888년에는 황제에게 정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상서를 올려서 정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1890년에는 광주에 만목초당을 열고 서구의 학문도 도입한 새로운 교육내용에 의해서 인재 육성을 도모하면서 금문경서(今文經書)만이 공자의 미언대의(微言大義)를 전한 것이고 고문경서(古文經書)는 전한 말의 유흠의 위작이라고 논단한 『신학위경고』 14권(1891)을 출판해서 보수파의 탄압을 불러 일으켰다. 1997년 상소가 광서제에게 인정받아, 다음해에 변법이 개시되고 광서제의 참모가 되어서 백일유신의 개혁 계획을 계속 입안했다. 그러나 개혁방법이 급격해서 서태후 등 보수파의 쿠데타로 겨우 3개월로 진압되고 강유위는 처음에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세계 각지를 유력하였으며 입헌군주정제의 실현을 기대해서 보황회(保皇會)의 설립에 노력하였다. 이

런 와중에서 1902년 오랫동안 구상해 온 〈대동서〉를 완성했는데 국가, 사유제, 가족, 남녀차이, 인종차이 등을 폐기한 후에 완전히 자유평등한 대동세계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유토피아론을 담고 있다.

정종모는 현대 윤리학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소수자 윤리학 담론을 매개로 강유위의 〈대동서〉를 적극적으로 풀어간다. "강유위는 〈대동서〉에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유가 인학(仁學) 체계의 핵심으로 삼고, 고통 받는 타자에 대한 윤리를 전개하였다. 강유위의 인학(仁學) 체계는 공맹(孔孟) 유학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예기』「예운」의 '대동(大同)' 개념에서 피력된 인정(仁政)의 이상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대동서〉를 급진적 사회공학의 아류로서 비판하였다. 그러나 유학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과제 하에서 우리는 '타자 윤리학', '소수자 윤리학'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유위 인학(仁學)의 실천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망 속에서 강유위의 『대동서』를 소수자 윤리학으로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자 한다."

강유위는 신해혁명 후 권력을 잡은 원세개의 복벽을 지지하면서 변법이 지향한 정신에서 벗어나 과거 봉건체제를 옹호한 보수주의자로 종말을 고하지만 〈대동서〉는 파격적인 내용만큼 시대의 고전으로 재음미되고 있다. 간재 전우가 강유위를 극심하게 비판한 데서도 〈대동서〉의 급진성이 드러난다.

황종원의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는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에 두고 양계초와 박은식의 견해를 비교했다.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다. "유교의 근대화에 대한 양계초의 견해는 박은식에게 대부

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유교의 종교화에 관해서는 중요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양계초가 주로 근대화에의 유용성을 준거로 종교화의 가치를 판단한 반면, 박은식은 도덕종교로서 유교의 이상이 근대에도 여전히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박은식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지만 박은식과 다른 양계초의 여정을 황종원은 이렇게 묘사한다. "무술변법 직후까지 양계초는 강유위의 강한 영향 속에서 맹자의 민본주의와 인정사상, 그리고 공자가 세웠다고 믿은 대동의 이상을근대의 민주, 평등, 평화의 이상과 일치시켰고 공자교 운동에 적극 찬동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구국이 공자교의 보전보다 시급하다고 여기면서 강유위와 자신을 비판했다. 유교가 기독교나 불교 등의 기성 종교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종교화하는 것, 공자 사상을 견강부회하여 근대 사상과 합치된다고 주장해온 것을 비판했다. 그렇다고 그가 유교의 근대적 의의 및 종교화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유교의 보편적 가치를 긍정했고 유교가 타 종교와 개방적이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자신을 지양하기를 희망했다. 나아가 종교가 가진 실천적 힘을 높이 평가했다."

양계초가 유교의 보편적 가치를 긍정했고 유교가 타 종교와 개방적이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자신을 지양하기를 희망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다루겠다.

민국시기 국학대사(國學大師)로 불린 인물이 있다. 바로 장태염이다. 그는 학문과 혁명을 같이 했다. 박학하고 심중한 학문을 현실에 투영한 그와 교류하고 배운 이들 중에 민국 시기 문학사, 정치사, 철학사에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즐비하다. 심지어는 이른바 상하이방이라는 암흑가의 인물들과도 교분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김영진의 〈장태염(章太炎) 제물논석(齊物論釋)의 '성심(成心)' 해석과 종자설〉은 장태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그의 제물론 주석을 분석한 글이다. 장태염은 비록 파문당하기는 했지만 청대 고증학 전통의 대미를 장식한 유월(兪樾)의 수제자였다. 장태염은 고증학자로 정치가로 불학가(佛學家)로 활동했다. 장태염은 불교의 유식학을 이론 도구로 하여 『장자』「제물론」을 분석했다. 이 저작은 불교 이론과 서양 철학을 동원하여 전통 사상을 독특하게 해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장태염이 〈제물론〉 개념 가운데 주목한 것이 '성심(成心)'이다. 장태염은 유식학의 종자설과 서양 철학의 범주론을 동원하여 이 '성심'을 해석했다. 그는 성심을 일종의 인식 틀로 이해했는데, 인간은 이를 근거로 자신과 세계를 인식한다고 파악했다.

김영진은 장태염의 성심론을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의 역대 〈장자〉 주석가들은 성심을 편견 아니면 진심(眞心)으로 이해했다. 장태염은 그것을 원형관념이자 종자로 이해했는데, 일종의 인식 틀로 이해한다. 유식학에서는 이런 인식 틀을 분별(分別, vikalpa)이라고 명명했다. 장태염이 이런 분별이 일상적 삶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그것이 하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확대한다고 보았다. 장태염은 '전통과 근대' 혹은 '중국과 서구'라는 긴장 구도를 주목했다. 따라서 그는 당시 많은 지식인이 보인 '전통 고수'나 '서구 추수'가 실은 모두 분별에서 기인했음을 지적했다."

이철승의 〈양수명철학에 나타난 인심관 문제〉은 양수명의 인심관을 다루고 있다. 양수명은 신유가의 대부와 같은 존재다. 향촌운동과 49년 중국공산화 이후 본토에 남아 지식인의 비판정신을 발휘한 인물이다. 그의 철학에는 실천정신이 넘쳐흐른다.

양수명이 중학(중고등학교가 통합된 과정) 졸업의 학력으로 당시 북경대학 총장이었던 채원배의 초빙을 받아 25세에 북경대학에서 강의하기 시작하였으나, 1924년 여름 7년간의 교수생활을 청산하고 사회운동에 투신했다. 양수명은 현실과 거리를 유지한 채 불교에 심취하여 불경을 연구하고 자신의 견해를 글로 발표하였는데, 이때 발표한 〈구원결의론(究元決疑論)〉이라는 논문이 채원배의 주목을 받아 북경대학 교수로 초빙되었다.

한편 천진 남개중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웅십력이 독후감을 적어 보내 불교에 관한 토론을 제안함으로써, 〈구원결의론〉은 현대 신유학 제1세대의 대표적 인물의 교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나중에 양수명은 웅십력을 추천하여 북경대학에서 강의하게 하였고, 만년에는 웅십력과 교류하게 된 내력과 웅십력의 철학사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웅십력의 3대 제자가 모종삼, 당군의, 서복관이다.

이철승은 양수명의 인심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인심은 도심과 대비되는 인심이 아니라 마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양수명은 말년 저작인 〈인심과 인생〉에서 인심관을 종합하였다. 그는 인심을 진화의 과정 및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본능과 이지와 도덕성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생명의 본성을 구현하는 활력소로 여긴다. 그는 인심을 기원의 측면에서 비록 몸으로부터 형성되었을지라도, 형성된 이후에 몸에 대해 반작용하며 몸을 주재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자율적이고 주동적이며 영활하고 계획성을 갖춘 자각능동성을 인심의 주요한 특징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능동성의 활동은 외적 요인에 의하지 않고, 그 자체의 내적인 역량에 의해서다. 양수명은

마음과 도덕적 삶을 긴밀하게 관계시키고, 도덕의 참됨을 자각과 자율에 맡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일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도덕의식이 그 사회의 보편적인 풍속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풍속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질서의식의 필요에 의해 기존 질서에 대해 변화, 개혁, 혁명 등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양수명은 도덕성의 구현을 생명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삶은 타율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마음의 자각능동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다. 마음과 생명과 도덕성의 연계에 관한 그의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 전통 유학 가운데 기철학적 계열을 계승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모택동의 주관능동성에 관한 이론을 계승한 것이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국내 명청대 유학 연구는 앞에서 밝혔듯이 양명학을 중심에 둔다. 양명학은 송명이학이라는 말처럼 주자학과 뗄 수 없는 관계망을 형성한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같음과 다름을 따지는 문제는 송명이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양명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주자학 측에서 제기하는 임정종욕(任情縱慾), 창광방자(猖狂放恣), 방기공부(放棄工夫), 엽등공부(躐等工夫) 등의 비판을 효과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선병삼의 〈양명심학과 명대 정치문화: 각민행도(覺民行道)를 중심으로〉는 바로 여기에 착안한 논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자의 성즉리(性卽理)와 양명의 심즉리(心卽理) 명제를 가지고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同異)를 따지는데 이를 학술적 혹은 철학적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유학이 현실 정치와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으로 갈리는 근거로 송나라와 명나라의 정치문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인 여영시(余英時)는 이에 착안하여 송대는 득군행도(得君行道), 명대(청대)는 각민행도(覺民行道)로 구분하였다.

선병삼은 여영시가 제시한 각민행도의 도식을 통해 양명학을 겨냥한 임정종욕(任情縱慾), 창광방자(猖狂放恣), 방기공부(放棄工夫), 엽등공부(躐等工夫) 등등의 비판을 해명하고자 한다. 그중 고헌성이 사구교를 비판한 내용을 분석하면서 선병삼은 이렇게 말한다. "동림학파의 영수인 고헌성은 천하의 교법이 무너진 것이 바로 심체를 무선무악이라고 한 사구교 첫 구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양명이 위선거악을 말하기는 했지만 심체를 무선무악이라고 한 이상 위선거악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극렬히 비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선무악한 심체는 확고한 도덕적 기준을 세울 여지를 없앤다. 고헌성의 표현을 따르자면 절의(節義)를 논할 터전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의를 중시한 송대 도학자들에 비하여 작금의 도학자들은 절의를 중시하지 않는다. 절의를 무시하게 되면 자연스레 부귀공명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속학(俗學)으로 전락하게 된다. 바로 이런 학문 경향이 세상을 망치는 것이다. 당시 명대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헌성의 비판은 준엄하다. 양명학을 두고 창광방자(猖狂放恣) 또는 임정종욕(任情縱慾) 하다고 비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는 양명학자 개인이 저질은 일탈 행위를 두고 창광방자 하다든지 임정종욕 하다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어찌 학문을 논할 수 있겠으며, 후대에 까지 이름을 전해 시비곡직을 묻는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비판의 말들은 명

교(곧 당시의 예법)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욕망을 긍정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양명이 양지를 시비지심으로 풀었을 때부터 창광방자와 임정종욕의 싹이 움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시비 판단을 할 적에 전통적이거나 권위적인 기존의 준거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개인 스스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명이 심체를 무선무악이라고 하면서부터는 기존의 공적 준거를 아예 무화시켜 버리는 급진적인 경향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죽어가는 명나라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 도덕강상을 붙들고 안간힘을 썼던 고헌성이 보기에 양명심학은 죽어가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 내려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명유학안』에 수록된 그의 글들을 읽어 보면 이런 심사가 절절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과연 양명학은 고헌성의 비판대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마지막 생명줄을 잘라 버린 것일까? 명교를 훼손함으로써. 만주족의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명말의 유로들은 망국의 암울한 그림자가 양명학이라는 망령으로부터 드리워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가들 중에는 근대의 좌절이니 혹은 근대의 굴절이니 하여 그 의의를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현대 연구자들의 견해는 본 논문에서 다룬 각민행도의 프레임을 통해 상당 부분 지지된다."

양명후학 연구는 양명학 연구에서 역시 중요 주제다. 양명후학 연구는 양명후학 개인 연구와 더불어 분화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국내 학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양명후학 분화는 강전무언의 도식이다. 그는 양명후학을 정통파, 수증파(우파), 현성파(좌파)로 나눈다. 강전무언 도식의 가장 큰 약점은 현성파와 정통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는 현성파는 본체를 중시하고 공부를 무시했으며,

정통파는 본체를 중시하고 공부를 중시했다고 한다.

현성파의 대표인물은 왕기와 왕간 등이고, 정통파의 대표인물은 전서산, 구양덕 등이다. 수증파의 허적 양지 본체론과 귀적 치양지 공부론에 대해 현성파와 정통파는 공히 반대한다. 우파에 대해 정통파와 좌파가 공동전선을 편 데에는 양지 본체와 치양지 공부에 대한 공통의 입장이 작용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지 본체는 미발과 이발을 불문하고 활발하다는 현성론을 공유하며, 치양지 공부는 양지대로 실천한다는 순종양지(循從良知)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강전무언이 현성파와 정통파를 구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실증이다.

그렇다면 현성파와 정통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선병삼의 〈구양덕 양지론의 종합적 이해〉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어간다. "현성양지설을 옹호하게 되면 치양지 공부론은 이른바 보임양지(保任良知)의 치양지 공부론을 강조하게 된다. …… 보임양지의 치양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오직 양지 본체만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원칙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양지 본체에 순종하고 인위적인 노력을 철저히 배제하는 치양지 공부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바로 자연(自然)과 계신공구(戒愼恐懼)의 문제다. …… 양지 본체는 지선지악(知善知惡) 하고 지시지비(知是知非) 해서, 양지 본체에 순종하는 치양지 공부는 선악을 판단하고 시비를 분별한 양지 본체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위선거악(爲善去惡) 하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실천하는 것이다." 현성양지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양지 자연을 추숭하면서 계신공구를 양지 자연의 길항으로 상정한다. 구양덕의 치양지론은 이 점을 바로 잡고자 했다.

박현정의 〈섭표 귀적설의 체용일원 연구〉는 섭표 귀적설을 체용일

원에 대한 섭표식 이해라는 방식으로 변호한다. 양명학은 즉체즉용의 체용일원인데 섭표는 선체후용의 체용일원을 긍정했기 때문에 귀적설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섭표가 자신의 귀적설을 제창하면서 그 정당화의 논거로 선체후용의 체용일원론을 원용했다는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

섭표는 왜 귀적설을 제장했던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다룬 것처럼 현성양지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도출되었다. 현성양지설은 미발과 이발은 통관하여 양지 현성을 주장하다보니, 양지가 아닌 정식(情識)도 양지라고 하여 이른바 창광방자적인 병폐를 갖고 있었다. 박현정이 "섭표가 선후가 있는 체용관을 택하였던 것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 즉, 그는 지각을 양지로 오인하는 기존 양명학파 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선후관계를 전제하는 체용일원을 제시하였다. 그는 당시 양명학 내에 성행하던 이미 발현된 의식을 통해 본체를 구하는 경향을 지각을 본체로 여기는 것이라 비판하며 경계하였다."는 말이 이것이다.

최종적으로 박현정은 섭표 귀적설의 의의를 다음으로 정리한다. "섭표의 귀적설은 본체 확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현실적인 작용은 비교적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섭표의 귀적설은 양명의 체와 용을 혼연일체로 파악하는 즉체즉용(卽體卽用), 즉용즉체(卽用卽體)의 체용일원의 의미와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고, 때문에 양명의 종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그러나 섭표의 귀적설은 양명학의 시대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창조적 계승의 의의를 가진다. 그는 당시에 만연했던 작용을 통해 본체를 파악하는 경향이 곧 작용 자체를 본체로 착각하는 오류를 낳는다고 보았다.

그의 귀적설은 바로 이 치명적 오류를 피하기 위해 본체를 확보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분명 섭표의 귀적설은 철학사라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양명후학의 사상 중 양지본체를 향한 희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귀적설은 이후 작용 자체를 본체로 여기는 극단적 경향으로 흘러간 양명후학의 폐해에 대해 일찌감치 예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박현정과는 다른 각도에서 섭표의 귀적설을 옹호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황종희가 섭표와 나홍선의 공부론을 긍정한 이유를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

간재 전우는 한말 심설논쟁에서 성즉리(性卽理), 심시기(心是氣)를 주장하면서 명덕을 리로 풀고자 하는 모든 경향들을 심학(心學)으로 규정하고 이단 학문으로 비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성사심제(性師心弟)의 명제를 제시하면서 마음으로 성을 공부한다는 성사심제(以心學性) 공부론을 제시한다. 간재는 양명학을 이단의 학문으로 평가하면서 양지를 공부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 창광방자의 병폐를 노정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간재는 이심학성과 치양지를 길항으로 설정했다. 치양지는 창광방자로 가는 샛길이고 이심학성은 성학(聖學)으로 가는 정로라고 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심학성과 치양지는 서로 닮았다. 해괴하지만 사실이다.

치양지는 양지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른 생각, 틀린 생각으로 나눈다면 양지는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양명의 말을 빌리면 천리(天理)의 명각(明覺)이다. 개인은 양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

다. 치양지는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 양지에 부합하는 지를 따진다. 곧 양심을 따른다. 양지는 생각이면서도 생각의 기준이 되는 바른 생각이다. 바로 선병삼이 〈양명심학과 명대 정치문화: 각민행도(覺民行道)를 중심으로〉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다. "사구교 중에서 무선무악의 심체와 지선지악의 양지는 동격이다. 양지가 바로 마음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선지악(知善知惡) 하면서도 무선무악(無善無惡) 한 심체(곧 良知)는 개인의 어떠한 주관적 판단(典要 혹은 格套)을 용납하지 않는 오직 양지만이 주재하는 심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교회에서 올바른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인데, 이때 성령님이 내 마음의 기도를 주재하는 영으로서 내 마음에 내주하면서 내 마음과는 또 다른 존재로 이해되는 메커니즘이다."

신현승의 〈명말 절강 선불교 문화의 성황과 유교의 대응: 정좌를 중심으로(明末浙江禪文化的盛況與儒教的應對:以靜坐爲中心)〉는 유종주 신독성의설이 정좌 공부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유학에서는 정좌라는 말보다는 경 공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말이다. 황종희가 유종주의 수제자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황종희가 섭표의 귀적설이 양명학의 양지설 본의에서 위배된 경향이 있다할지라도 양지학의 일종으로 긍정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치양지는 양지대로 하는 공부이고 양지의 명령을 듣기 위해 늘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공부가 섭표가 말한 귀적 공부론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유종주가 신독성의설을 주장하는 배경에 자리한 정좌 공부도 동일한 맥락이다.

조선성리학에서 사칠논쟁 이래로 리동설(理動說)은 중요한 철학 주제다. 퇴계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하면서 리동설을 주장했고, 율곡은 기발리승일도설을 주장하면서 리동설을 부정했다. 간재는 성학과 심학

을 정통과 이단으로 구분하면서 심학은 리동설에 기반 한다고 하여 철저하게 리동을 반대했다. 한편 리동설을 옹호하는 입장은 리의 주재성을 강조하면서 리동설을 부정하는 입장을 비판한다. 이슬람교나 기독교(천주교)는 알라신과 야훼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지고의 존재로 섬긴다. 알라신이나 야훼 하나님은 모두 인격자이다. 리동설에 견주어 보면 리동 중에서도 리동이다.

전홍석의 〈명말 예수회 '천학 · 선교신학'의 분화: 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는 리치가 평가하는 유학의 종교 관념을 서술한다. "리치는 선유 · 후유, 진유(眞儒) · 속유(俗儒), 경전 · 주석으로 양분해 경서인 원시유학(儒家, Confucianism)의 종교성은 긍정한 반면, 주석인 신유학(理學, Neo-Confucianism)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원시유가의 천, 상제 관념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신' 개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신유학의 '리'는 실체(自立者, substantia)가 아니라 속성(依賴者, accidens)에 불과해 '신' 관념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당대의 신유학이 외래적 악영향(佛 · 道敎)으로 진유 고교眞儒古敎의 신성(하느님 숭배)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고대의 중국인들은 초자연적실체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당대의 중국인들이 그러한 관념을 잃어버렸다는 '후고박금'의 사유형식에 토대한다." "원시유학을 대응자, 신유학을 배제인자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을 확인시키고자 했다. 특히 고대 유학을 전략적 제휴자로 보는 수준을 넘어 그 전통 속의 신의 이미지와 언설을 추출해 그리스도교적 신이라고 선언한다."

전홍석의 분석에 의하면 리치는 송명이학은 기독교적 신 개념을 철저하게 탈각했다고 본다. 신 개념이 탈각된 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

로 "원시유가의 천, 상제 관념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신' 개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신유학의 '리'는 실체(自立者, substantia)가 아니라 속성(依賴者, accidens)에 불과해 '신' 관념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주자는 리기의 불상리와 불상잡을 동시에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기가 없더라도 리가 있다는 리선기후의 입장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실체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속성은 실체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때, 리를 속성이라고 하는 리치의 입장은 신유학의 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인격적 유일신을 인정했는가 물으면 신유학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자는 리선기후를 말하면서도 논리적 선후이지 경험적 선후가 아니라고 하며, 경험세계에서 리는 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리는 무정의, 무조작, 무계탁한 존재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경험 세계를 주관하는 인격적 신의 존재를 용납한다. 언제나 리선기후이고, 리동이다.

황종원의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에서는 유학의 종교성과 근대성을 피력한 양계초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양계초는 서양이 오늘날의 문명을 이룩한 데에는 종교혁명으로부터 고학(古學)이 부흥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구의 근대문명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서 그 정신적 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주목한다. 동일선상에서 중국도 근대화되려면 유학을 종교화하고 선진시대의 학술사상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양계초는 강유위가 제창한 공교(孔敎)를 다음 6가지로 정리한다. "강유위가 공교(孔敎)를 세우면서 내세운 공자의 이념적 지향을 다음 6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공자교는 상고시대를 이상적으로 보는 복고적 역사관이 아니라 춘추공양전의 삼세설에 근거해 발전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 둘째 공자교가 전제정치를 적극 옹호하는 순자의 학통과는 달리 백성을 귀히 여기는 맹자의 학통을 이어받아 평등을 지향한다. 소강은 전제의 정치이고 대동은 평등의 정치이다. 맹자는 대동의 학을 전했으므로 그 책에서는 모두 민권을 주의로 했다. 셋째 송 대 이후 유자들이 자신을 단속해 잘못을 적게 하고 삼가 조심하는 것을 종지로 삼는 거경(居敬)의 수양에 치우쳐 있었던 것과는 달리 공자교는 사회개혁의 구세정신을 지닌다는 것이다. 넷째 공자교는 사회문제에 유약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적극 대처하여 해결하려 하는 사회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다섯째 한 대 이후 유자들이 편협하게 문호(門戶)의 대립을 일삼았던 것과는 달리 공자교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포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추구한다. 여섯째 공자교는 육신을 지닌 '나'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정신을 중시한다." 후에 양계초는 공교운동에서 떠나 자신의 길을 가지만 그가 설명한 공교 정신 6가지는 현대 사회에서 유학의 가치와 역할을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안내 지침이 될 것이다.

유학은 불교와 노불이 출세인데 비해 입세와 경세를 주장한 학문이다. 유학자들은 우리야말로 현실에서 이상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자기정체성을 내세운다. 소위 수기치인(修己治人), 수기안인(修己安人), 성기성물(成己成物), 내성외왕(內聖外王)이다. 저 노불은 수기, 성기, 내성의 측면에서는 논할 만한 것이 있지만 안인, 치인, 성물, 외왕의 측면에서는 유학에 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유학자들이 노불을 비판하는 교판론의 핵심이다.

왕부지는 이민족인 만주족에게 명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몸소 겪은 사람이다. 젊어서는 남명정권(南明正權)에 참여하여 명조의 부흥을 꿈꾸기도 했었다. 그의 학문이 지향하는 방향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의 폐단으로 망국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학문적 임무는 명확하다.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의 폐해를 일소하여 실학을 부흥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재의 기학과 역학을 학문의 종지로 삼는다.

진성수의 〈왕부지(王夫之) 사서학(四書學)의 특징과 청대(淸代) 실학(實學)으로의 전환〉에서 이를 비교적 소상하게 서술한다. 신유학은 노불을 허학이라고 하여 비판하고 수기안인의 실학을 표방했는데, 이제 왕부지는 송명이학은 다시 허학이라고 비판을 한다. 실학을 표방했던 신유학이 허학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왕부지는 이렇게 설명한다. "송대에 주자(周子)가 출현한 이후 비로소 성인의 도가 연원하는 바를 드러내 밝혔는데 모두 태극 · 음양 · 인도(人道) · 생화(生化)의 끝과 처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정자(二程子)가 그것을 끌어와 전개하여 고요하고 한결같은 성실함과 공경함의 공부를 실(實)로 삼았다. 그러나 유씨[游酢]와 사씨[謝良佐]의 무리가 또 갈라져 나와 부처의 샛길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주자는 격물궁리(格物窮理)로써 가르침의 기초로 삼아 학자를 뚜렷한 도의 가운데로 바로 잡아 묶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두 번 전해진 이후에는 쌍봉[饒雙峯]과 물헌[熊勿軒] 등의 제유가 흔적을 쫓고 그림자를 밟아 훈고에 탐닉하는 곳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백사(白沙, 陳獻章)가 일어나 그것을 싫어하여 버렸으나, 결국 겉으로는 유가지만 속으로는 불가인 요강(姚江) 왕씨(王陽明)가 성인의 도를 속이는 사악한 학설을 열었다. …… 그리하여 무선무악(無善無惡)과 이사(理事)를 통합한

다는 속임수로 가득 채웠다. 그 피해가 서로 더욱 커져서 중도(中道)가 서지 않게 되었고, 굽은 것을 바로 잡다가 올바름을 넘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열게 되었다."

왕부지의 평은 신유학의 큰 흐름을 서술한다. 주자가 격물치지를 즉물궁리로 풀이한 데에는 불교가 표방한 명심견성(明心見性)의 주관주의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명대 심학이 나온 데에는 훈고와 지식추구로 전락한 주자학 아류가 있었다. 양명학은 주자학 아류를 교정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주관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왕부지는 안재호의 평처럼 정주학에서 '단지 존재할 뿐 움직이지 않는[只存有無活動]' 리체(理體)와 육왕학에서 '존재를 소홀히 하고 활동만 중시하는[忽存有重活動]' 심체(心體)를 비판하며, '존재하는 동시에 활동하는[既存有亦活動]' 기체(氣體)를 강조한다.(안재호, 〈왕부지철학〉, 문사철, 2011, 45쪽)

왕부지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도기론(道器論)에서 구체화된다. 다시 한 번 진성수의 말을 들어보자. "도기(道器) 개념은 주역의 '형이상의 것을 도라고 하며, 형이하의 것을 기(器)라고 한다'에서 처음 보이는데, 주자는 '괘효(卦爻)의 음양은 모두 형이하이고, 그 이치는 도이다.' 하고 해석하며 형이하의 세계와 형이상의 도를 엄격히 구분한다. 왕부지는 반면에 '~라고 한다(謂之)'라는 것은 그 일컫는 것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상하라는 말은 애초부터 정해진 어떠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의논하는 것에 따라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하에 특별한 경계선이 없으니, 도기(道器)에는 다른 본체가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천하에는 오직 기(器)일 뿐이다. 도(道)란 기(器)의 도이지, 기(器)를 도의 기(器)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상세계[氣]

와 그 배후의 본질[理]을 엄격히 구분하여 이원적(二元的)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정주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주학의 이원적 입장은 왕부지만이 아니라 양명학도 반대한다. 그렇다면 본체론의 근간을 이루는 이기론에서 왕부지와 양명학은 차별을 보이지 않는다. 왕부지가 양명학을 비판한 이상 이기론에서는 공통의 이해 지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점을 밝혀준다면 논의가 더욱 주밀해질 것이다.

4. 평가와 전망

〈명청대 유학〉 총17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로는 왕양명(양명학) 연구가 11편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물론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15년도부터(14년 발표 논문 기준) 왕양명에 대한 연구는 늘 수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학계에서 명청대 유학사 연구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한편 18년도에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이 새롭게 등장한 점이 눈에 띈다.

명청대를 기준으로 선별한 17편의 논문은 작년에 26편으로 폭발적인 증가세 이후 예년 추세를 회복한 수량이면서 여전히 명대 양명학(심학)에 국한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군이 다양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한국내 연구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거니와 연구자 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총 17편의 논문들 중에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문제의식이

있는 논문들이 다수 등장했다. 그 중 한 편을 꼭 고르자면 전홍석의 〈명말 예수회 '천학 · 선교신학'의 분화: 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를 명말 천주교 분화를 살피는 데 참고할 만한 논문으로 추천하고 싶다.